

### 영암군 덕진면 지사협, 다문화가정에 긴급 생계지원 ‘훈훈’

#### 20가구 선정 영암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 복지사각지대 자녀 지원·소외계층 등 지원

영암군 덕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강병국, 민간위원장 조형일)는 최근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덕진면 지사협은 지난해 12월 29일 다문화가정 20가구를 선정하여 영암사랑 상품권 100,000원씩을 지급했다.

덕진 지사협에서는 매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문화체험을 실

시해 왔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확산되면서 체험 행사를 취소하고 대신 생계 지원을 위한 상품권 지급으로 대체했다.

강병국 면장과 조형일 위원장은 “코로나가 확산되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체험 행사는 취소됐지만, 생계비 지원으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덕진 지사협에서는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고 도움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덕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가구 자녀 지원, 반찬서비스,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영암=조대호기자



### 광주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사업’ 추진

####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광주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12월 29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사업’은 일반 학교에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장,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복도 단차 제거, 안내시설 구비 등 접근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계획됐다.

시교육청은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해 지난해 7월~11월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조사해 대상을 파악했다.

광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박현중 부장은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우리 센터와 협력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사람이 편하다’는 말이 있듯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공부하는 학교를 목표로 시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떨어지는 학교에 우선

순위를 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사업’을 실시하고, 2021년에는 우선적으로 79교에 19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시설2팀 조영우 사무관은 “학교 시설을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사업’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게 되면 좋겠다”며 “특히 이번 사업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타 시도에 앞서 시설을 보완하는 만큼 편의시설 보완 사업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 담양 헤림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평가’ 최우수기관



담양의 헤림종합복지관(관장 김금용)이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헤림종합복지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한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평가’는 전국의 334개 활동지

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헤림종합복지관은 전국 7위, 전남 1위의 결과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서비스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기관운영(사업·인력관리), 서비스 제공(계획수립·품질관리·결과), 종합의견, 이용자의 만족도조사, 지역사회 협력 등 4개영역, 총 26개 지표를 평가해 최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헤림종합복지관은 이용자(장애인)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영역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지역사회 지원을 연계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성과가 높게 평가됐다.

담양=박종영기자

### 화순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

화순군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노인 또는 한부모 가족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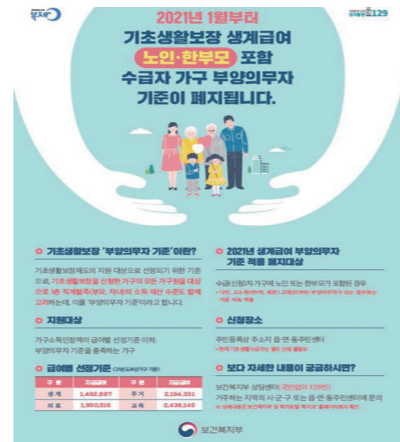
화순군은 T/F팀을 구성해 내년 1월 15일까지 사전 예비 대상 1000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복지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선정 기준 완화를 홍보하고 대

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 가족(30세 이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화순=박순철기자



### 광주 광산구 (주)부창자원, 돌봄 이웃에 이불세트 나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 (주)부창자원 이태영 대표가 지난해 12월 28일 돌봄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이불세트 10개를 광산구 평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태영 대표는 “코로나19로 유독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는 돌봄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임행택기자

